

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으며,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

<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7.17) >

◆ 새 아파트 가뭄,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

-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입주물량이 올해 3.8만호, 내년 4.8만호로 예상되어 아파트 준공물량 10년 평균인 3.8만호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다,

* 서울 APT 입주예상물량(호): ('24) 37,897 ('25) 48,329 ↔ (10년 평균) 38,004

- 기사에서 인용한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물량은 19.2만호 였으나,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실제 준공물량은 18.4만호로, 6월 실적을 더할 경우 기사의 입주 예상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- 아울러, 올 1~5월 누계 전국 공동주택 준공실적(18.4만호)과 착공실적(10.7만호)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.5%, 31.4% 증가하는 등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 발표한 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며,

- 3기 신도시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	책임자	과 장	한성수 (044-201-3317)
	주택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서지훈 (044-201-3325)